



즉시 배포용: 2019 년 2 월 28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재산세 상한제를 영구적으로 만들고 중산층 세금을 인하하기 위한 중산층용 세금 공평성 캠페인(TAX FAIRNESS FOR THE MIDDLE CLASS CAMPAIGN) 개시

영구적 재산세 상한제로 향후 10 년간 납세자가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디지털 세금 계산기 공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재산세 상한제를 영구적으로 만들고 중산층 세금을 인하하기 위한 중산층용 세금 공평성 캠페인(Tax Fairness for the Middle Class Campaign)을 개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영구적인 재산세 상한제의 혜택을 보여주기 위해 디지털 세금 계산기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재산세 상한제로 납세자가 얼마나 아꼈는지와 영구적 재산세 상한제로 향후 10 년 동안 아낄 추산액을 보여줍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는 나라에서 가장 높은 일부 재산세가 있으며 사람들은 주정부가 역사적인 2% 지방 재산세 상한제를 통과시킬 때까지 주택에 대한 세금을 냈습니다. 이제 연방 정부는 우리를 후퇴시키며 손실이 막대한 한도를 이용하여 뉴욕 주민에게 주 및 지방세 공제금에 대한 세금을 효과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중산층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 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방 재산세 상한제를 영구적으로 만들고 중산층 세금을 인하하며 주 및 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뉴욕 주민을 위해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우리 행정부의 급선무입니다. 재산세 상한제를 영구적으로 만들면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주정부는 중산층 개인과 가족을 공격하는 새 연방 세금법에 맞서 세금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2011 년, Cuomo 주지사는 재산세를 완전히 통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몇 년 동안 재산세 한도를 정하려고 노력한 결과 뉴욕은 최초로 2%의 재산세 상한제를 통과시켰습니다. 2012 년 세금 상한제 시행 이후 지방 재산세 성장률은 2000 년에서 2010 년까지 평균 5.3% 성장률에 비해 평균 1.9%가 되었으며 세금 상한제로 주 전역 납세자는 244 억 달러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재산세 상한제는 주의 장기적 동향과 궤도를 바꾸었습니다.

주지사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역사적인 중산층 세금 인하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안에 따라, 중산층 세율은 소득에 따라 5.5 퍼센트와 6 퍼센트로 떨어질 것이며 감세가 완전히 시행될 경우 중산층의 소득세율이 최대 20 퍼센트 줄고 2025년까지 600만 명의 소득세 신고자를 위한 연간 감세액이 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세율 단계에 들어설 경우 해당 납세자들에게는 70년이 넘는 기간 중 뉴욕주에서 가장 낮은 중산층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Trump 대통령과 면담 후, 뉴욕주와 기타 대부분의 민주당 주에 불공정한 영향을 준 주세 및 지방세 공제 혜택 전면 삭감의 엄청난 영향을 알리는 세금 공정성을 위한 전국적 캠페인(Campaign for Tax Fairness)도 발족했습니다. 뉴욕주는 12월과 1월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수입금의 예상된 지급액이 23억 달러 감소한 것을 보았습니다. 뉴욕주의 수입 감소는 같은 기간 동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주들의 결과와 일치합니다. 주지사는 주 및 지방세(SALT) 공제를 전면 복구하고 민주당 주 대부분에 대한 불공정한 경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